

군산시, 정부추경 국비 320억원 확보

맞춤형 희망근로 지원사업 55억원 확보

중소기업 판로개척·사업 다각화 등 탄력

자립도시 군산시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예산에서 국비 320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금번 추경은 지역 위기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 위주로 확보되었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집행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정부예산을 살펴보면 ▲고용위기지역 맞춤형 희망근로 지원사업 55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6억원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 4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옥서지구) 10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243억원 ▲항만역사관 건립사업 2.5억원으로 총 6개사업 320.5억원이다.

특히 맞춤형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국비 55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취업취약계층 800여명이 4개월간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조기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비로 국비 6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사업 다각화를 위한 윈스톱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군산 지역 목재 생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 4억원도 확보되면서 지역 향토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번 추경이 역대 최대 규모 국회 단계 감액이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산시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는 정부와 정치권에 끊임없는 지원을 호소한 강임준 시장과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대폭 편성과 역대 최대 추경예산 감액 등으로 지역 예산확보가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힘든 상황에서 확보한 추경 예산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금번 추경에 미반영된 사업은 목적예비비나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집중하여 금번 상반기 정부 목적예비비로 7개 사업 총 137.9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향후 추가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폭염 대비 온열질환 주의 당부

군산시보건소, 안전수칙 준수 강조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강관리해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6월 기준 온열질환자는 총 5명이며, 열경련 3명, 열탈진 1명, 열사병 1명으로 연령대는 각각 20대, 30대, 40대, 50대, 80대였고 이 중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사례는 실외 작업장, 논·밭뿐만 아니라 방방장치가 없는 실내 작업장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각 실내 작업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더위가 심해질수록 대처가 어려운 노약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서 더위를 참다가 열사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인력 40여명이 직접 방문해 무더위 쉼터 안내 및 안전수칙을 교육·홍보하고, 폭염대비 안전수칙 소책자를 시민홍보에 활용하는 등 한여름 온열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나 노약자는 더위에 더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의 농작업자는 무더위에 작업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무더위 시 작업을 자제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드론장비 활용 농촌지역 어르신 살핀다

군산시, 폭염특보 시 무더위 쉼터로 안내

군산시가 폭염 절정기를 맞아 지역 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시민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읍면지역에 협약업체 드론장비를 띄워 폭염 속에서

농촌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파악해 시원한 무더위 쉼터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 강임준 군산시장, 이광영 서해드론교육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재난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하고 재난현장 드론장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구체적인 순찰내용은 전날 기상예보를 파악해 폭염이 우려되는 읍면 지역 선정 및 순찰 범위를 정하고, 협약업체와 현장에서 드론을 띄워 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밭이 많은 지역 위주로 순찰하고, 일하고 있는 어르신 등이 확인되면 바로 읍면 상황대기 직원에게 통보해 무더위쉼터 등으로 이동 조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실제 폭염이 절정기인 지난 5일 드론장비를 활용 순찰한 결과 밭에서 일하고 있는 80대 어르신 2명을 확인해 생수를 지급하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로 안내해 온열질환 발생 등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봤다.

군산시 관계자는 "폭염특보 시 현장에 드론을 띄움으로써 농촌지역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정확한 현장파악이 가능해져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고군산군도 도서지역

수돗물 공급대책 마련

자립도시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대책이 마련된다.

6일 시에 따르면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해마다 겪는 고질적인 식수난이 해결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말 고군산연결도로 개통과 더불어 연육교와 연결된 신시, 무녀, 선유, 장자, 대장도 5개 도서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완료했다.

또 올해부터 추진 중인 선유도 ~ 방축도 구간에 해저관로를 설치해 오는 2021년까지 방축도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개야도 일원에 4만6천톤 규모의 저수지를 조성해 일일200톤 공급이 가능한 정수시설을 갖추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관리도와 두리도에도 관정개발과 정수시설, 해수담수화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연내 마무리해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동태문 수도사업소장은 "금번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식수 공급으로 주민 불편해소 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읍면지역에 협약업체 드론장비를 띄워 폭염 속에서 농촌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파악해 시원한 무더위 쉼터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식단·레시피 제공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영양 관리를 위해 센터에서 개발한 식단 및 식메뉴 레시피를 시민과 다문화가정에 제공할

다고 6일 밝혔다. 성장기 어린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철 음식은 물론 필수 영양소를 고려하여 개발한 식단

은 점심과 저녁 식단으로 매일 초에 제공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고루 갖춘 식메뉴 레시피를 매일 개발하여 제공한다.

식단 및 식메뉴 레시피는 익산시 홈페이지 익산소식 게시판과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알림마당 자료실

게시판,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이버 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올바른 학습관 형성과 성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정인천 기자

군산시, 희망근로지원 사업 추진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

고용위기지역 지정된 군산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차 희망근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반기에 국비 56억을 확보하고 실직자,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희망근로지원 사업을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근로지원 사업은 공공부문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군산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환경정비와 공공시설 관리 등이 주사업유형인 지역공간개선행 지원 사업, 어린이하트꽃길안전도우미사업 등 총 3개 유형의 사업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군산시민으로 실직자와 그 배우자, 취업취약계층을 선발하며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재산 및 소득 초과자, 반복참여자로 모집인원 미달시 선발될 수 있으나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중복참여자의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게 참여에서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사업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4시간, 주 5일 근무로 이뤄지며 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 참여자 모집

익산시는 난임해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로 진단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자연치유 캠프 참여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 동안 진안 온생명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며 합숙생활비, 교육비 등 모든 캠프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전통체조, 산책과

명상, 난임 치유식 만들기 등 친환경, 자연생활 체험을 통한 부부의 건강증진과 자연 난임 치유를 유도하여 자연임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익산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캠프 참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익산=정인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